

<중국사무소>

# 중국문화산업 이슈페이퍼

2008년 7월4주

KOCCA 중국사무소

## □ 목 차

1. 2008년 상반기 중국 드라마 시장 회고 및 전망.....	3
-------------------------------------	---

## 1. 2008년 상반기 중국 드라마 시장 회고 및 전망

종예(綜藝) 제10기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당대소재 드라마가 여전히 강력한 발전세를 보여 주요 창작 소재를 차지함과 동시에 사극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광전총국에 등록된 전국 드라마 제작수를 볼 때 총 387부, 12360집 중, 당대소재가 198부, 6613집을 차지했다. 당대 소재 중 도시 소재의 수량이 제일 많은데 141부 4480집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 국산 드라마는 제작 수량이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하다. CSM 매체 연구의 시청 수치 통계에 의하면 <상춘아이칭2 (鄉村愛情2)>, <아이우휘이 (愛無悔)>, <앤즈췌 (胭脂雪)>, <티앤미미 (恬蜜蜜)>, <소우저훤샤취 (笑着活下去)>, <중칭디에잔 (重慶碟戰)>, <상하이왕 (上海王)> 등 작품을 대표로 한 농촌소재 드라마, 도시 멜로 드라마, 간첩 전쟁드라마 등의 시청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방송 시장에서 광범한 시청 열풍을 일으키고 관중들의 주목과 여론의 화제로 떠오른 건 오히려 근대 전기 소재 작품 <창관동 (闖關東)>이었다. 이 드라마는 산둥TV방송국 영상극센터와 대련 TV방송국이 합작 제작한 것으로서 사상성, 예술성, 관상성에 대한 완미한 표현으로 지역적 제한성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전국 범위내에서 시청율 1위를 창조함으로써 드라마 브랜드 구축에 나선 각 대형 위성TV들이 애써 모방하는 대상이 되었다.

7월, 올림픽과 스포츠에 관한 드라마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6, 2007 2기 호남아의 <테니스왕자>, 여러 국가가 공동 참여한 <이소룡전기 (李小龍傳記)>, <장사출정 (壯士出征)>, <우리집 올림픽 (奧運在我家)>...

전체 드라마시장의 생산기구들을 보면 대부분 민영기구를 주(主)로, 국유제작 기구를 부(副)로 하여왔다. 하지만 최근 방송기구들이 자체 제작, 기획 제작한 드라마 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광전총국은 각종 정책을 제정하여 중국 드라마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TV방송국은 사극, 형사안건 소재극에 대한 구매 선택에 더욱 심중하게 되면서 드라마 제작 기구의 소재 선택과 판매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 각 tv방송국은 사극을 구매하지 않으려 한다. tv방송국이 주목하는 소재는 멜로극, 간첩 전쟁극, 군대소재극이다. 우수한 드라마는 지방 방송국에서 뿐만 아니라 CCTV 각 채널에도 인기가 많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전에 비해 물가 상승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아 드라마 제작 원가의 압력도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품질이 우수한 작품은 시장성이 좋아 제작 과정에서 이미 전

부 판매된 경우가 많다. 점차 많은 위성tv방송국이 구매 경쟁의 행렬에 뛰어들고 있으며 연합 독점 방송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 드라마 1집 제작 평균가격은 40만위엔-80만위엔사이이며 100만위엔이상에 달하는 것도 있다. tv방송국이 드라마 구매 비용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하반기 올림픽 대회가 드라마 구매에 대한 영향에 대해 대부분 드라마 구매부서는 우수한 작품 구매는 올림픽을 포함한 기타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일단 구매한 후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방송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반기 현실소재 드라마의 생산은 여전히 주류가 될 것이다.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30주년이 자 중국 영상사업 발전 50주년이며 2009년은 신중국 성립 60주년이다. 이외 또 지진 피해를 통해 보는 인간성과 사랑 등 요소로 tv매체는 분분히 구매, 제작, 방송의 목표를 혁명소재에 집중시키고 있다. 혁명, 군대, 격려, 농촌 등 주선을 소재극은 여전히 올 하반기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지진세계의 7일(震撼世界的7日)>, <야막 아래의 하얼빈(夜幕下的哈爾濱)>, <이소룡전기(李小龍傳奇)>, <신분의 증명(身份的證明)>, <중국옛일(中國往事)>, <스스통탕(四世同堂)>등 드라마들이 하반기 기대작으로 전망된다.